

SCM(한미안보協) 합의사항 논란 증폭

작통권 전환시기 이상한 절충 핵우산 '확장 억제' 의미 異見

제38차 한미안보협의(SCM) 합의 사항을 놓고 전문가와 정치권 사이에서 갖가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크게 전 작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미확정, 핵 우산과 관련한 '확장억제'에 대한 해석, 전략지침에 얽힌 진실 등 크게 3가지다. 특히 일부 사안들은 합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당사자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에서 비롯돼 논란이 쉬이 가라 앉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시기 왜 특정 못했나= 한미는 SCM에서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돼 사실상 '원만'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측은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해 2011년 10월 또는 2012년 1월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기준 입장에서 크게 후퇴

우리 정부로서는 이 안이 애초 설정한 목표연도와 근사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2012년 하반기를 요구했고 결국 미측의 입장을 고려해 2012년 3월15일까지 후퇴했다는 것이 협상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 사태라는 '소나기'를 일단 피해야 하는 한미 양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특정시기를 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확장억제'가 핵우산의 구체화 방안인가=SCM 공동성명에는 핵우산 제공과 관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말이 처음으로 명기됐다. 전문가들은 핵우산이란 용어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유사시 핵무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국은 서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확장억제 개념을 처음 적용한 뒤 아직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에 한국 측 요구에 따라 이 개념을 채택했지만, 자칫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핵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논란은 럽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일 SCM이 종결된 직후 합동기자회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의 설명에 묘한 답변을 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윤광웅-럼스펠드 선문답

럼스펠드 장관은 '한국 측이 핵우산 구체화를 요구했는데 왜 예년수준으로 표현되느냐'는 질문에 "그 같은 변화를 위한 어떤 제안을 들었다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준과) 다른 언어 표현을 보지 못했다"며 통역과 취재진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년보다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럽스펠드 장관은 "oh, really?"(오, 정말)라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확장억제' 개념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MCM(군사위원회 회의) 전략지침' 진실은=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지난 18일 '핵우산 제공 구체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MCM에서 연합사령관에게 지침을 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연히 핵우산 제공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보도됐다. 하지만 미 국방부 관계자는 20일(미국시간) "그것과 관련한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 보도를 보면(별사령관)이 핵전략에 대해 계획을 짜거나 그런 종류의 일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핵전략 지침 美 전면부인

권안도 정책홍보본부장도 같은 날 "MCM에서 핵우산 보장을 위한 군사대비 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순수한 군사적 논의, 즉 작전계획 보안, 대북 감시정찰,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의 발전대책을 논의했으며 핵을 핵으로 보복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北 핵실험 '의도적 방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의도적 무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의 핵실험을 통해 순이익을 가져왔으며 구태여 핵실험을 말리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北 유화발언 외교적 수사”...‘무시전략’ 일관 일부 고위관료 “美에 순이익 가져왔다” 평가



압록강변의 北 병사들 압록강 접경인 신의주의 북한 군인들이 23일 동료 군인을 강물에 빠뜨려 버릴 듯 장난을 치면서 서로 웃고 있다. 북한과 중국 접경인 압록강 건너 단둥에서 촬영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北 노동자 임금 절반 이상 노동당 유입”

한나라 김기현의원 주장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임금 가운데 절반 넘는 부분이 노동당에 유입되고 있으며, 이를 한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김기현(한나

라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가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 공문에 따르면, 북측 근로자의 명목 월급은 57.5 달러이지만 이중 북한 노동당이 30달러를 가져가고, 개인이 받는 임금은 1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북한의 굴복 강요하는 무시=북한 핵실험 이전 미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일단 재개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6자회담 틀 안에서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하는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에 조건없이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담보되지 않은 채 열리는 6자회담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 19일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당사(唐家璇) 중국특사에게 했다는 ‘다소 진전된 발언’에도 미국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냉소를 보내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의 고위인사들이 나서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일부 확인한 김 위원장의 발언조차 ‘별것 없다’고 일축하는 것은 ‘무시전략’에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상황 인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핵실험까지 해가며 상황을 악화시킨 만큼 압박을 통해 그들이 도저히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6자회담을 해야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미 행정부 주류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당분간 어설피 큰 대화국

면의 복원보다는 강력한 대북 제재 수순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의 전술적 후퇴를 무시하고 ‘굴복에 가까운 후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북 핵실험 미국엔 이익=워싱턴 포스트는 22일 미 행정부의 일부 고위 관리들은 대북 정책에 대한 내부 이견을 종식할 것이라는 기대로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고립시킬 것인가를 놓고 종종 이견이 있어 왔으며 이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전 일부 관리들은 핵실험이 이러한 분쟁을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믿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해주길 조용히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 신문은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중 북한 핵실험이 미국에는 순이익(net plus)을 가져왔다고 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북 핵실험 미국에 이룰 것 없다=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 입장에서 북한 핵실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달라져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며 “말 테면 해라. 핵실험하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핵폭탄이 그만큼 나오고 우리한테는 이득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북제재 中보다 한국이 더 신중” 라이스 국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대책 논의차 지난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 순방 이후 “당초는 북한의 팽방인 중국이 가장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점차 대북 강경 제재에 가장 신중한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이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일본이 미국을 지지하는데 가장 앞장섰으며 중국은 당초 예상보다는 덜 거부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규모 군대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한국은 북한을

가장 세계 압박하는데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런 화물예 대한 검색의 경우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약속 이행 자세를 보인 반면, 한국은 신중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북한의 경제적 생명선을 쥐고 있는 중국은 북한이 제기하는 핵위협 대응에서 예상보다 훨씬 단호한 자세를 보였으며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주 평양에 특사까지 보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北 親中인사 중심 쿠데타 가능성 美 뉴스위크 보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중간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친중(親中)인사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축출하는 궁정쿠데타 가능성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먼저 북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토론이 전례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는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에서의) 친중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70%인 하루 1만1천배럴의 석유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 "중국은 확실히 그럴만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Beautiful Day featuring a large red apple and text promoting a voting event on October 25th (Wednesday). The text includes the slogan '당신의 한 표가 우리 고장의 미래입니다' (Your one vote is the future of our hometown) and provides details about the candidates and the voting process. The voting time is specified as 6 AM to 8 PM.